

기도 겸손 순명, 믿음 가득한 성모님 신앙적 레지오로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신심 생활분과 소속 성모승천 꾸리아는 3월 10일(주일) 오후 1시 성전에서 주임 신부님과 수녀님 이어 레지오 단원 130여명 순서로 성모님께 자신을 새롭고 온전하게 봉헌 다짐하는 아치에스 행사를 하였다.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 신심을 재확인하며 모후의 사령관 이신 성모님께 성직자나 수도자 레지오 단원들이 충성심을 다짐하는 레지오 마리아의 신심 행위이다. 류현숙(루시아) 수녀님께서 ‘레지오 단원 여러분은 다시 신심을 새롭게 하며 성모님께 봉헌하는 이 아치에스 행사가 창시자 프랭크더프가 성모님을 주관으로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 드리고 하

느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정신을 이어받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은 세례받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완전한 사람이란 성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레지오의 목적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과 상통합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레지오의 정신에 따라야 하며 레지오 마리아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성모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알아야 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모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에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성모님에 관한 내용이 성경 구절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며 곰곰이 되새겼다.” 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말씀이나 태도 하느님을 향한 자세를 보면 한결같습니다. 침묵 기도 철저한 겸손 앞뒤 따지지 않는 순명,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가브엘 천사의 알림에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유 앞에 모인 목동의 말도 곰곰이 되새겼다. 예수님을 잃었다가 되찾으셨을 때에도 마음에 간직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골고타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위에서 숨지시는 예수님 아래 서 계시면서 눈을 흘리시며 함께 고통 하시면서 서 계셨던 성모님은 일생 동안 단 한번도 ‘NO’ 라고 하지 않으셨고 불평 불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의 지극한 겸손, 하느님께 대한 신앙, 어린이 같은 단순성으로 인해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고 구세주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라고 아치에스 행사 훈화를 하셨습니다.



